

94.3.19

비리항의에 제적...정상생활도 방해

상문고, 검정고시 필요 증명서 발급거부등 애먹여

상문고에서 저질러진 전횡과 비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이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다.

특히 상춘식 교장의 비리를 비판하며 지난 89년 교내시위를 준비하다 사전에 들켜 학교에서 쫓겨난 신승일(23·연세대 경제3), 손원철(23·중앙대 국문2)씨와 지난해 학내에서 상씨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박아무개(19)군 등 4명의 학생들이 겪은 고통은 비인간적인 수준에까지 이른 상문고의 '교육' 아닌 '교육'의 실상을 또렷이

드러내고 있다.

“학교의 반교육적 처사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상문고가 취한 대응방식은 ‘고문’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만큼 혹독했습니다.”

학교쪽의 부당한 모의고사 대금 징수에 항의하는 유인물을 돌리다 지난해 11월29일 제적된 박군은 아직도 악몽을 씻지 못하고 있다. 박군은 “유인물을 나눠주다 선생님들에게 끌려간 뒤 열하루 동안 수업도 받지 못한 채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

부실에 갇혀 날마다 30장씩 반성문을 썼으나 결국 퇴학당했다”고 말했다.

상문고의 반교육적 행태는 이들을 학교 밖으로 쫓아낸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학교쪽은 정문 수위실 벽에 제적된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놓고 제적학생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이들이 검정고시 등을 보기 위해 떼려온 증명서 발급조차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끝까지 방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박군과 함께 퇴학당한 김아무개(19)군의 경우 지난달 4일 미술학교인 예림고에 편입하기 위한 실기시험까지 합격했으나 상문고에서 “교장의 허락 없이는 생활기록부를 떼어줄 수 없다”며 퇴짜를 놓는 바람에 불합격처리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지난 17일 학교에 찾아온 또 다른 제적학생의 어머니 권정인(45)씨는 “제적된 아이가 오는 8월에 시행될 고졸 자격 검정고시를 치르려면 학교에서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12월부터 넉달째 학교를 드나들며 통사정을 해도 서류를 떼주지 않는다”며 “제적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에 진학할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김영희 기자